



가톨릭마산

사순 제1주일

2024년 2월 18일

제2605호



홀로 서 있는 나목裸木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창세 9,8-15
 화 답 송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제 2 독 서 1베드 3,18-22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마르 1,12-15
 영 성 체 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김유겸 베드로 신부

금산본당 주임

영적 투쟁

교회는 해마다 사순 시기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고 유혹받으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르코 복음의 광야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상기시킵니다. 아담이 들짐승들과 함께 지냈고 천사들이 아담의 시중을 들었다는 오랜 유대 전통의 말대로 천사들이 있고, 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패배하고 자신이 하느님이 되려고 한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에 대한 승리자로서 서 계십니다.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는 이스라엘의 40년에 걸친 광야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느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승리자로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패배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상처 입은 인간 역사를 당신의 승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서둘러 이 영적 투쟁으로 이끄신 것처럼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지체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대면하신 이 전쟁에 동참해 패배의 역사를 회복시킬 의무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하느님만을 섬기는 믿음과 순종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 이 영적 투쟁의 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도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의 순간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수난과 부활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결정적 순간이며, 동시에 하느님 대신 죄를 선택하라 유혹했던 적대자 사탄에 대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시며 자신을 하느님으로 섬기라는 모든 권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영적 투쟁의 승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는 다시 이 영적 투쟁의 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도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승리의 순간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 걸음의 끝에는 주님의 수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교구 사제·신학생 친선 축구경기



교구 사제들과 신학생들의 친선 축구 경기가 2월 5일 창원 팔용 어울림 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축구 경기에는 '길벗 사제단'(회장: 김승태 마티아 신부)과 교구 신학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구를 하며, 친교와 소통의 자리를 열었다.

인간의 돌봄과 하느님의 영역



예수 성심 시녀회/ 진동 요셉의 집

진동 요셉의 집에는 6명의 수녀가 농사를 짓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 첨단의 문화 안에서 몸 쓰는 일보다는 머리 쓰는 일에 더 가치를 두는 오늘날.

우리는 굳이 이 힘든 일을 왜 하고 있을까?

소비의 극단을 달리며, 낭비의 문화가 전되기 힘들고 물, 땅, 공기의 오염은 숨이 막힐 것처럼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손으로 지구의 한 귀퉁이라도 덜 오염시킬 수 있다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을 뿐, 무엇보다 우리가 돌보고 가꾸는 만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자연이 고맙고 인간적이어서 좋다.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시작한 농사이기에 처음에는 주변에서 힘들 거라고 걱정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들도 우리 방법을 접목한다.

5월 말에 교육이 있어서 며칠 진동을 떠났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 5월 초에 심은 고추 모종들은 사흘이 멀다 하고 물을 줘도 비실거렸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겠지 하면서 설마 4일 동안에야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않았다.

내가 없는 사이 피정이 있어서 남아 있던 수녀들은 피정자들 뒷바라지하느라 아직 어린 고추밭에 가볼 시간이 없었나 보다. 돌아오니 가뭄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지 못하고 고추가 100포기 넘게 말라죽었다. 속상하고 걱정이 된 수녀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포기마다 물을 듬뿍 주고, 신문지로 우산을 만들어서 씌워보았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다. 수심 가득한 수녀들을 다독였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다. 차마 빈 땅으로 돌 수가 없어 시장에 갔더니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부실한 고추 모종이 조금 남아 있어 사다 심었다. 6월 1일인데 가능할까? 그렇게 심어놓고 이젠 하느님 손에 맡겼다.

습관처럼 눈뜨면 일기예보부터 확인한다. 두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더니만 혜성처럼 비 소식이 뜨고 드디어 단비가 대지를 적실만큼 충분히 내려주고 있었다. 긴 가뭄 끝에 내리는 꿀맛 같은 단비다. 우리를 포함한 대지의 모든 생명체들이 환성을 울리며 찬미의 송가를 부른다. 다행히 늦게 심은 고추도 단비 덕분에 뿌리를 잘 내렸다.

농사를 지으면서 자주 숙고하는 주제가 있다. 돌봄의 주제와 하느님의 영역이다.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작물의 필요가 보인다. 모름지기 모든 생명은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비로소 알아듣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으로 돌본다고 해도 일정 부분 하느님의 영역이 있다. 세상 창조 후 하느님이 첫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도 마지막 보루로 선악과를 당신의 것으로 남겨 두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허용 너머에 당신의 것이 존재함을 배운다.

자신의 한계 내에 머물 때,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창조질서가 보전된다는 보편진리. 100포기의 고추 모종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인간의 돌봄과 하느님의 영역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삶에서 파생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느님의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하느님이 되려는 무질서한 집착으로 이 한계를 지키지 않았기에**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인간, 자연의 창조질서가 깨져버린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6-17)



하느님께서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자유로의 부르심은 힘든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속박에 매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광야는 다시 한 번 우리 첫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행하려면, 그 첫걸음은 현실에 눈 뜨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당신께서는 보시는 하느님, 무엇보다도 들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탈출 3,7-8 참조). 오늘날에도, 억압받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의 울부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나요? 그 울부짖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움직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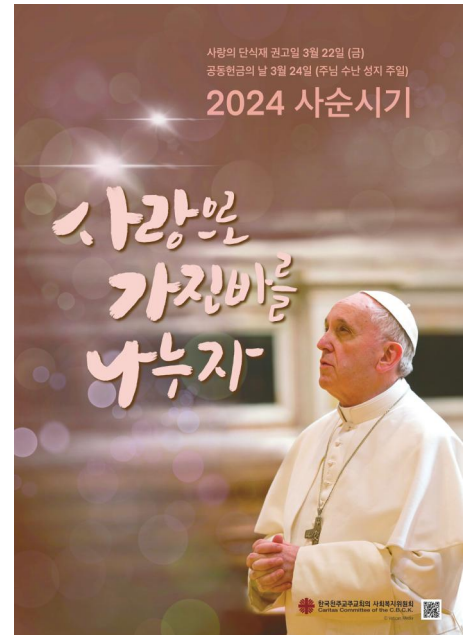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 자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 제1주일에 기억 하듯,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유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다시는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탈출기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는 어떤 싸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 하느님의 이 목소리에 원수와 그의 거짓말이 대적입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 갈등을 낳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사순 시기에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 안에서 멈추고,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서로 관계없는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들과 우리를 구속하는 집착을 쫓아버리는, 개방과 자기 비움의 단일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축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꿈이자, 우리가 노예살이를 뒤로한 채 여행을 떠나는 약속된 땅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사순 시기가 시류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공동체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때라는 것도 시사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마태 6,16) 이렇게 하는 대신,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을 보게 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도록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 시기가 회개의 때가 된다면, 불안해하는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인 솟구치는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막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애원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치러지는 제3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마의 고통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침이 아닌 역사의 위대하고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머무르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리스본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 2023.8.3.) 이러한 것이 회개의 용기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시기 여정을 축복합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31

통영지역 교우촌 (4)

병인박해 이전부터 경남의 바닷가엔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마산,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해안지대다. 그때까지 이 지역을 방문한 선교 사제는 없었다. 당연히 세례성사도 미사도 없었다. 그런 데도 교우들은 있었다.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온 피난 교우들이었다.

이 사실은 리델(Ridel 李福明) 신부의 교우촌 지도와 치명일기(致命日記)가 입증한다. 리델 신부는 1861년 조선에 왔다. 병인박해 5년 전이다. 입국 때 그는 전국의 교우촌이 그려진 지도를 갖고 있었다. 이 지도에 서부경남 교우촌 8개가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문산(弓山), 칠원(龜山面), 의령(芝正面)이다.

문산과 의령의 지정면을 제외하면 모두 바닷가 마을이다. 지금의 칠원은 함안군에 속해 있지만 1860년대는 단독 군(郡)으로 마산지역 구산면(龜山面)을 관장하고 있었다. 1908년까지 구산면의 육지와 바다는 칠원군 소속이었던 것이다.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에도 구산 순교자 정서방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정서방은 경상도 칠원 돌섬서 살더니 정묘 정월에 진주 포교에게 잡혀 진주 옥에서 여러 달 갇혔다가 병들어 죽으니…’(병인 순교자 증언록 308면)

정묘년은 병인년 이듬해인 1867년이다. 칠원 돌섬서 잡혀온 교우가 진주 옥에서 순교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돌섬은 현재의 구산면 구복리(龜伏里) 저도(猪島)를 말한다. 당시 이곳은 칠원군 소속이었던 기에 칠원 돌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병인박해 이전에도 경남의 해안지대 곳곳에는 피난 교우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러기에 리델 신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지역 교우촌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의 방문은 치명일기 구 다두(타대오) 편을 통해 알려져 있다.

치명일기는 1895년 발간되었다. 민비가 살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해다. 병인박해 순교자 877분의 명단과 약전(略傳)을 기록한 책이다. 구 다두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함안 미나리골 중인으로 이 신부를 모시고 거제도에 전교하였더니, 병인년에 진주 포교에게 잡혀 매를 많이 맞고 나와서 죽으니(치명일기 831면).

이 신부는 리델 신부를 말한다. 경상도 남쪽 방문이 처음인 그에게는 지리에 밝고 신심 깊은 협조자 즉 복사(服事)가 필요했다. 구 다두는 충실했던 책임자였기에 기록이 남았을 것이다. 당시는 교통수단이 빈약했다. 두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으며 대부분 걸어 다녔다. 리델 신부는 가능한 모든 교우촌을 찾아봤을 것이다. 거제도가 최종 방문지였다.

당시 남해 바닷가 중심지는 통영이었다. 통제영이 있는 군사도시였기에 사람들이 많았고 일거리도 넘쳐났다. 자연스레 교우들도 모여들었다. 진주와 함안 쪽에서 온 피난 교우들이 정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거제도로 건너가 거제 교우촌을 형성하기도 했다. 윤봉문 순교자 가족이 오기 훨씬 전 이야기다. 이 시기가 통영 교우촌 전성기였다. 리델 신부는 통영에 오래 머물다 거제도로 갔을 것이다.

통영에 교우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890년대 이후다. 박해로 떠난 교우들이 돌아왔던 것이다. 그중에는 섬으로 피신했던 교우들도 있었다. 연화도(蓮花島) 교우들이다. 1899년 진주본당 신부로 부임한 타케(Taquet 嚴宅基) 신부의 기록에는 연화도 교우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 1904년에는 당시 마산본당 2대 주임 무세(Mousset 文濟萬) 신부가 연화도를 방문해 유아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을 남겼다. 통영공소는 1900년 소재지에서 시작되었고 읍내공소라 했다.

교구장 서리 동정

재무평의회

일시: 2월 2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사목 방문

일시: 2월 22일(목)
본당: 장평/ 대진/ 태평동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2월 22일(목)
본당: 상평동/ 금산/ 장재동

교구/본당

교구청 사무 감사

일시: 2월 19일(월) 10:00
장소: 교구청

재무평의회

일시: 2월 20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경 교육봉사자 임원 및 조장 워크숍

일시: 2월 20일(화)
장소: 교구청

55차 선택주말

일시: 2월 23일(금)~25일(주일) 2박 3일
장소: 성령 영성의 집

신임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2월 24일(토) 13:30
장소: 교구청

교리교사 동계 피정

일시: 2월 24일(토)~25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직수여식

일시: 2월 25일(주일) 11: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

청년 성서 '에파타'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 공부와 나눔에 관심 있는 청년
신청: <https://forms.gle/syBoKbvEen9dC5AJ7>
및 QR코드로 신청



유의사항: 첫 그룹 공부를 신청하시는 경우, 주제를 창세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자는 직전 주제의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제별 개설반의 모임 시간은 신청자들과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2월 기도모임

일시: 2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만송(11:00)-시티(11:06)-
현대주유소(11:16)-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전례꽃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2월 22일(목) 13:30
장소: 교구청

222차 ME주말 안내

일시: 3월 15일(금)~17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황인성(골디아노) 010·4570·3392
김은수(소피아) 010·9234·8171

기 타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추가모집

추가모집: 2월 29일(목)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예수화센터 불학기 비대면 강좌(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내용: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 화요일 19:00~21:00, 12주 과정
내용: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화요일반: 19:30~22:00, 13주 과정
목요일반: 19:30~22:00, 13주 과정
신청 및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으로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 중)

일시: 3월 13일~16일(추)/ 3월 18일~20일/ 3월 23일~26일(추)/
4월 11일~13일/ 4월 16일~18일/ 4월 20일~22일/ 4월 24일
~26일/ 4월 28일~5월 1일(추)/ 5월 2일~4일/ 5월 6일~8일/
5월 11일~14일(추)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하루 무료 피정

일시: 4월 13일(토)/ 5월 11일(토)
(10:00~15:00 / 14:00 미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무료 피정 예정
장소: 부산가톨릭센터(051·462·1870)
강사: 권민자 수녀
신청 및 문의: 010·4837·7509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피정: 개인 피정 및 전례 피정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원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해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당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2024년 교구 연영연합회 임원

회장: 정승환(예로니모)-신안동본당
부회장(창원지구회장): 이관(요셉)-사림동본당
부회장(거제지구회장): 김정현(비비안나)-옥포본당
부회장(마산지구회장): 배원철(미카엘)-월남동본당
부회장(진주지구회장): 정승규(요아킴)-신안동본당
총무: 이두경(미카엘)-북신동본당
회계: 백수희(소화데레사)-상평동본당
감사: 허영(베네딕토)-상남동본당
기획부장: 송민섭(베네딕토)-하청본당
기획부차장: 김광태(미카엘)-창녕본당
교육부장: 김주화(프란치스코)-석전동본당
교육부차장: 주내(하상바로)-명서동본당
전례부장: 이경숙(도나타)-함양본당
전례부차장: 이상욱(이나시오)-용잠본당
홍보부장: 백은영(아네스)-고성본당
홍보부차장: 신혜정(프란치스코)-석전동본당
웹다인교육부장: 한일문(하상바로)-사파동본당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2월 19일(월) 19:00	중앙동성당	관계 안에 계신 하느님	강지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교구)		010·5247·9900
진주지구	2월 26일(월) 19:00	신안동성당	회개	표중관 베드로 신부(부산교구)		010·3846·1980
청년	매주(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성지 순례 매주 출발 한국성지167 대구대교구 3월-3월 22일(금)~24일(주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성모님발현지 4개국 12월-6월 10일(월)~21일(금)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이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	--	--



아내를 황제처럼 섬기던 어떤 젊은 노예

윤혁재 레오 시인/ 가톨릭문인회

가난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배우려, 소신학교 대신학교 군대 삼 년을 마칠 때까지 나를 데리고 다니다, 운이 안 좋아 학교로부터 쫓겨난 내 열등의 시간 동안 부친 뒷골목 가난한 동네를 헤맬 때, 배웠던 것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어릴 적 읍내 살던 아픈 장애 처녀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이해 살아보라는 내 선생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날로부터 마리아와 함께 병원 문턱을 한 삼십 년 넘게 들락거렸다. 그때마다 턱하니 기다리고 서 있던 그 두려운 죽음의 골짜기를, 당신이 기적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딸 아름이와 함께 제 어미 손 꼭 잡고 감사한 맘으로 기어오르다, “이젠 이십일 세기의 의술보다 최고의 치료는 맑은 공기다.”라는 주치의의 진단을 보듬고, 954호 중환자실을 탈출하여 고향 산천 내렸더니, 여직 까맣게 귀 막혔던 놀라운 사실 하나에 또 바수어진 내 맘 싸매지도 못한 채, 나는 이 소문의 진원지를 여기저기 헤적여보았다.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시킨 당신을 흉내 내다 ‘반푼이’가 되다 못해, 이젠 위선자라며 ‘새꼬름한’ 눈총을 쏘아대는 이놈의 고향을 고마 왁, 하느님요! 우째베리까요?

당신이 더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태생으로, 가는 팔 다리로 새파란 숨을 내쉬다 자주 엎어지는 장애가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장모님은 “찬찬히 두 손 잡아 일으켜, 괴로워하더라도 잘 달래어, 그 고된 ‘석션’을 기도으로써 서로 참아내며 살아 주길 바라네.” 하시던 그 간절한 바람보다, 당신이 부탁한 이 길을 세상 그 뒤편보다 두 귀 쫓긋 세워 보살피라 하셨기에, 어린 딸 아름이와 함께 그 너른 눈물강을 애 터지게 저어 오다 육십이 다 된 저물녘에, 어찌 오늘은 이 노예의 팔도, 귀한 딸의 고운 손도 빌리지 않고, 하느님 손만 꼭 잡고 저 너머 길을 혼자 갈 줄 아셨는교, 저 공중의 빛나는 수많은 별들은 저마다의 신뢰의 희망이지만, 그대가 철석같이 의지하던 이 노예의 별은 잠시 동안 반짝이다만 별똥별이었네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한 번 그대를 위한 반짝이는 별이 되고 싶으요, 지난날의 내 결연한 의지가 나약한 환상에 머무른 게 너무 죄스럽소, 마리아요, 우리가 즐겨 들던 ‘레너드 코헨의 푸른 레인코트’ 위로 올해도 어스름히 내려앉는 성탄이, 눈개처럼 내 맘의 강을 사알살 흘러 다니네요, 참 기쁜 소식 하나요, 귀한 딸 아름이가 어릴 적 당신의 병약한 죽음의 트라우마에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다 요샌 주일미사도 보며 그 냥저냥 지내 주니 참말로 고마울 뿐이지요.

“이웃을 내 식구처럼 어루만져 주라.” 하신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던 ‘반푼이’ 같은 신앙의 삶과, 먼눈으로 빈정대며 바라보는 세상의 삶과의 괴리에 절망한 지금을, 또 불러내시어, 이 열등의 나이에도 시詩를 한번 써보라 꼬드기십니까. 내 킁킁한 헛간의 가슴 밭에 오래 처박혔던 검푸른 시간들이, 저 하얀 하늘 밭에 쏙쏙 잡혀 나와, 시퍼렇게 잡아 삼킬 바다처럼, 내 바닥 모를 바알간 눈물이 겁 모르고 대들다, 전 신줄에 목을 매는 바람의 시간에 그만 폭삭 절여져, 잘 썩은 거름인 양 소쿠리에 퍼 담아, 한겨울 보리 밭에서 더는 하얗게 움츠려들지 않으려, 섯노란 몸 빠끔히 내미는 저 이파리들을 위해 흙뿌리라 하시는 교. 시인이 밤새도록 어루만져 토해 내는 시처럼 참 기도인 양, 두 손 모으겠습니다.

*석션suction: 폐 속에 찬 가래와 침을 빼 내기 위해 호스를 폐 속까지 넣어 빨아내는 의료 행위



선재先在하는 이, 위爲하는 이

조우현 십자가의 요한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인간은 모두 자기보다 앞서 존재해왔던 이를 통해 태어나고 그 이덕에 삶을 꾸려 나갑니다. 아기가 태어남에 앞서 부모가 있고, 아기가 자라남에 있어 부모의 돌봄이 있습니다. 이는 소위 사회생활이라 불리는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학교는 배움을 받아야 할 학생과 그 학생보다 먼저 있어 왔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위함에 의의를 두는 선생으로 구성되는 작은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는 갓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이와 먼저 자리를 잡아서 후임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선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하고 합리적인 선의를 통해 먼저 있어왔던 이는 늘 자기 뒤의 사람들을 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전자, 후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먼저 있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는 이들이 준비합니다. 성경은 그 현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하느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저지르고서는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 그 죄값을 자기에게서 태어난 하와에게 떠넘깁니다(창세 3,12). 형 카인은 자기의 제물보다 동생 아벨의 제물을 선호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동생을 살해하였고, 그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은 피에 대한 책임을 울부짖습니다(창세 4,10; 마태 23,35). 동생 야곱은 형 에사우보다 먼저 있기 위해 그의 장자권을 술수로 사들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이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가로챍니다(창세 27,35).

이러한 현실에 그 어떤 존재보다 선재하시는 하느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이 구절은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하느님으로서 그 누구보다 선재하시며 동시에 아버지 하느님을 ‘향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영원으로부터 아버지 하느님을 향해 있는 그분의 얼굴이 첫 아담의 저주와 아벨의 피를 뒤집어쓴 땅을 향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이로써 하느님께서 ‘먼저 있음’의 근본 의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선재는 배타적인 신성을 세움이 아니라, 저주와 피를 뒤집어쓸지언정 우리와 함께하심을 지향합니다. 그 함께하심은 십자가 상 죽음과 부활에 이르는 신비로서 땅에 스며든 저주와 피를 씻어냅니다(묵시 7,14). 주님께서 ‘선재(pre-existentia)’하시는 분으로서 한 처음에 당신께서 보시기 좋다 하신 인간을 ‘위하시는 실존(pro-existentia)’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실로 은총 위에 더 부어지는 은총이자 축복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요한 1,16).

우리 모두는 늙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레 어떤 이들보다 ‘먼저 있는’ 존재가 되거나, 특별한 지향으로 ‘앞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선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서 저주가 되고 타인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일로 귀결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먼저 있음은, 주님의 선재를 닮아, 항상 타인을 위함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찍이 주님의 선재를 고백했고(요한 1,15) 세상의 죄를 없애심으로써 사람을 위하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의 뒤를 따라 사람들을 위한 세례를 베푸신(요한 1,29-34) 세례자 요한의 삶은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되어줍니다. 선재하는 이, 위하는 이의 전형이신 주님을 뒤따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세례자 요한의 전구를 청해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회교리 회칙, 「찬미받으소서」(2015)와 파리 기후 협약 *Paris agreement*(2015)이 이루어진지 이제 햇수로 8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 회칙과 파리 기후 협약은 모르더라도, 최근에 각종 뉴스들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와 한반도와 관련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의 현상에 대한 뉴스와 기후변화특집 방송들이 점점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에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우리는 크게 경각심을 가지거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 때,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06°C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2명의 과학자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이 바이오사이언스 *BioScience*(2023, 73)라는 국제저널에 <2023년 기후 현황 보고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을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지구의 '행성생명신호' 35개 항목 중 20개 지표가 극한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하며, "그 시간이 왔고, 지구가 불안정한 위험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기상과학자들의 보고서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류의 위기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경고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0년 54일간의 장마로 한반도의 남부, 특히 하동지역의 엄청난 비피해를 기억하십니까? 또 2022년에는 서울에 80년 만의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서울의 강남이 잠겼고 이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2023년 충남 오송지역에는 4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제방 붕괴로 인해 인근 지하철도가 침수 되어 안타까운 생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호우가 있기 이전 전남지역은 50년만의 227.3일 간의 기상가뭄(6월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일정량 이상 적은 상황)으로 인해 물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년 기상이변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연평균 상승 속도는 3.03mm이지만, 최근 10년으로 한정하면 상승속도가 이전에 비해 10% 빨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와 동해는 이 상승속도가 더 빠릅니다. 조금 더 체감이 되도록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용머리 해안의 2017년 탐방로 개방일은 74일이었지만, 2021년에는 개방일이 6일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즉, 일대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보고서와 실제 기상이변 등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지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모두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를 부정하거나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구라는 행성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이미 여러 차례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멸종도 겪었기에 이번의 기후변화도 그와 같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길지도, 혹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회적인 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관찰을 통해 기후변화가 인류의 위기를 야기시킬 것이라 경고했고,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인류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야기시킨 기후변화이기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면, 이 기후위기를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기에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은 현재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C이하로 방어하자고 파리 기후 협약(2015)에서 합의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1.5°C이하로 상승폭을 줄여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의 IPCC(인천, 2018)의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한 지 꽤 시간이 흘렀으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이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를 위기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결정의 우선순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과 정책적 결정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은 현재 암울한 전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 회복력을 기대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의 한계점으로 보고 있는 지구평균온도 1.5°C 상승의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으며,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 급박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의 안일한 대응 자세는 문득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한 이들에 하셨던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는 저녁때가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하지 못한다.”(마태 16,2-3) 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 하늘의 징조도 분별하고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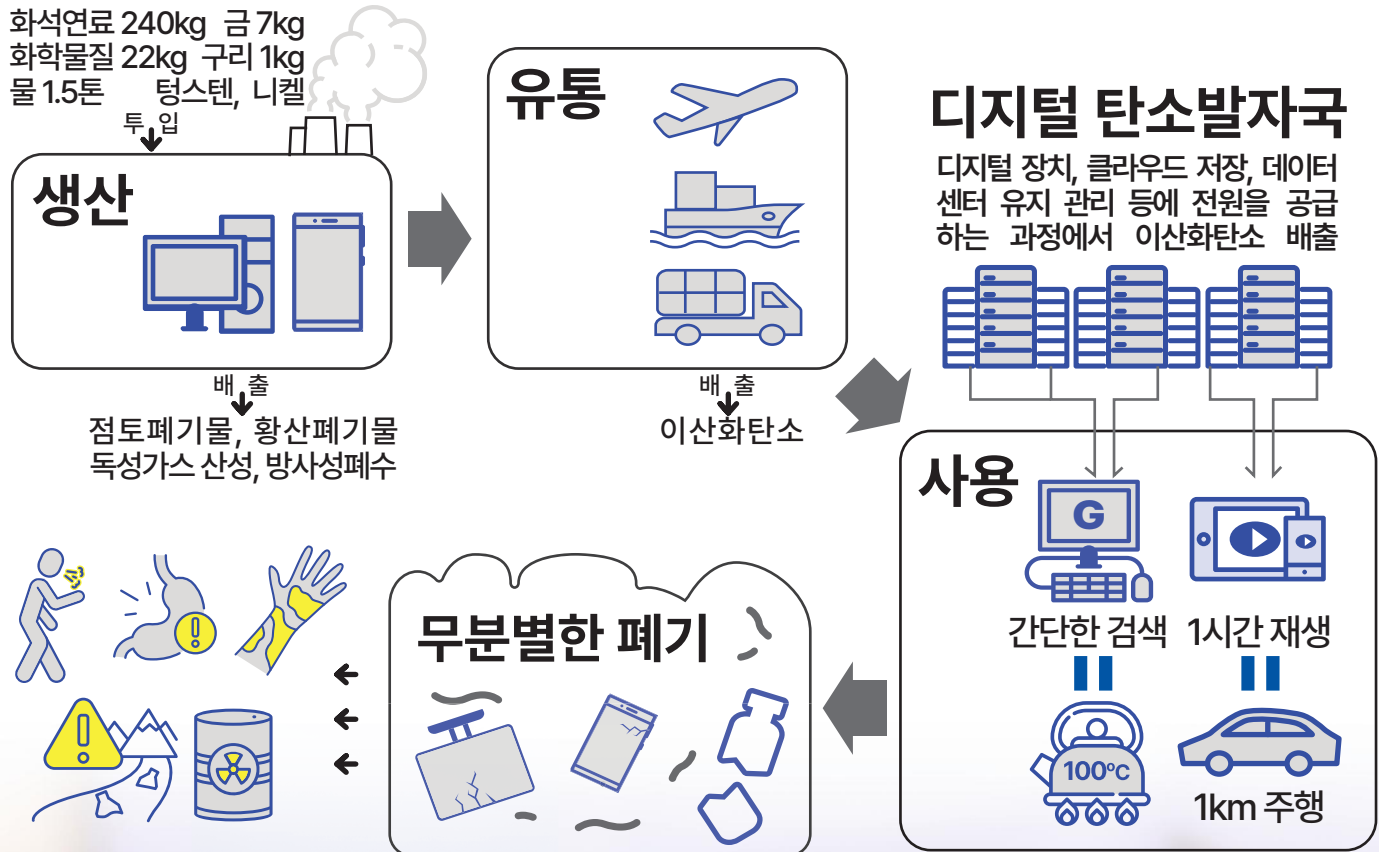
샌디에고 *Frans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실천사항 1 아껴쓰기_Reducer

'종이 대신 전자 기기'의 불편한 진실

전자 기기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함께! 기도해요 :)

이번 주는 전자기기 사용을 잠시 멈추고,
촛불을 켜놓고, 혼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가정을 위한 기도, 묵주기도, 자유기도 등)



함께! 놀아요 :)

온라인 게임 대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노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끝까지 살아남기"

1. 재료: 신문지(이면지, 전단지 등)

2. 방법: 팀을 나눕니다.

팀별로 펼친 신문지 위에 모두 올라섭니다.
5초간 버팁니다.

무승부 시, 반으로 접어 나가며 제일 적은
면적에서 버틴 팀이 승리합니다.



EBS

다큐프라임
여섯번째대결종
1부 재앙의 서막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세요